

“입담 만큼 맛있는 요리 알려드려요”

신동엽·성시경 아우디용 찰떡호흡

‘오늘 뭐 먹지?’ 룽런 비결

“엄마’ 배우들 집밥 배우고 싶어”

“찜닭에 커피가루를 넣으면 잡내를 잡을 수 있다고 해요. 무조건 블랙커피를 넣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믹스(커피) 넣으시면 굉장히 이상해요.”

“(그렇게) 드시면 ‘뭘’ 됩니다. (웃음)”
얇치마를 두른 두 남자가 불 앞에서 실 세 없이 농담을 주고받는다. 손으로는 마늘을 다지고 튀김가루 반죽을 휘저으면서 입도 놀려두지 않는 이들은 방송인 신동엽과 가수 성시경이다.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 E&M 스튜디오에 마련된 올리브TV ‘신동엽 성시경은 오늘 뭐 먹지?’(오늘 뭐 먹지) 녹화 현장이다.

‘오늘 뭐 먹지?’는 매일 끼니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2014년 9월 시작한 요리 프로그램이다. 신동엽과 성시경이 자신만의 요리법이나

요리전문가가 일러준 비법으로 직접 요리를 만든다. 지난달 14일 도미 요리를 마지막으로 한 달간 쉬었던 ‘오늘 뭐 먹지?’는 15일 재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돌아왔다.

두 MC는 16일 오후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안동 찜닭과 닭뿔집 튀김을 직접 만들어 내놓았다. 둘은 이날도 만나자마자 방송과 다른 없는 차진 입담을 보여줬다.

신동엽은 “성시경이 가수로 데뷔하기 직전에 만났는데 백 퍼센트 안 될 거로 생각했다”며 성시경을 놀려댔고, 성시경은 “그때 (신동엽이) 막 복귀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할 때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다시 전성기를 누릴 줄 몰랐다”고 맞받아쳤다.

프로그램은 햇수로 3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신동엽은 요리에서 해매고 성시경은 능숙한 모습으로 방송에 등장하는 것이 설정은 아닌지 궁금했다.

신동엽은 “이제 고백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일부러 요리를 못 하는 척을 했다”고 말했다가 곧바로 성시경으로부터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구박을

들었다.

신동엽은 이어 “성시경은 ‘이 요리를 망치면 안 되는데, 맛있게 해야 하는데’라면서 걱정을 많이 한다”면서 “저는 열심히 하는 캐리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일부러까지는 아니어도 솔직히 열심히 연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둘이 만든 음식은 162개 한식을 비롯해 무려 250가지에 달한다.

“음식이 실제로 정말 맛있느냐는 물음을 자주 받는데 진짜 다 맛있다. ‘미치도록’ 맛있거나 (적어도) 그냥 맛있거나 둘 중 하나”(성시경)라고 설명한 이들은 가장 인상적인 음식으로 육개장과 허귀(중국식 사브사브), 수육, 돼지국밥 등을 꼽았다.

‘쿡방’과 ‘먹방’이 범람하는 가운데 ‘오늘 뭐 먹지?’가 생각하는 경쟁력은 무엇일까.

신동엽은 “대부분 음식 프로그램에 전문가가 한 명 이상 등장하는데 우리는 비전문가 2명이 전문가인 척하면서 벌어지는 소소한 재미를 많은 분이 색다르게 봐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고두심, 강부자 등 ‘엄마’ 배우들의 집밥 비법도 배우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다.



지난 14일 방한한 미국 토크쇼 진행자 코난 오브라이언과 그가 노랑진수산시장에서 구매한 애완용 산낙지.

한국여고생 편지에 응답한 미국 토크쇼 황제

코난 오브라이언 한국특집 촬영차 방한

임동철한 추위로 아랑곳없이 15일 저녁 서울 강남 오피스타운에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 이들이 만나러 온 사람은 바로 미국 토크쇼 황제인 코난 오브라이언(53)이다.

미국 TBS 토크쇼 ‘코난쇼’의 한국 특집 촬영을 위해 방한한 오브라이언은 이날 저녁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팬미팅을 열었다.

이날 행사장 주변 카페에는 오후부터 일찌감치 선착순 사전신청에 성공한 팬들이 저마다 선물을 들고 모였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코난을 알게 된 이후 그의 매력에 빠졌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조윤빈(여·17) 학생은 “코난이 1년간 방송을 쉬고 있을 때 보여준 낙관적인 태도에 특히 반해서 롤모델로 삼게 됐다”면서 그를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유정민(여·18) 학생도 “코난이 한국에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 친정 엄마가 시집가는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리바리’ 챙겼다”면서 불닭볶음면과 신라면, 흡란볼, 패수건, 세안밴드 등으로 가득 찬 쇼핑백을 열어 보였다.

방송작가 출신인 오브라이언은 미국 NBC 토크쇼 ‘레잇나잇쇼’를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이끌었으며 2010년부터는 케이블 채널인 TBS에서 ‘코난쇼’를 진행 중이다.

그는 한국 여고생이 보내준 한국 교과상자와 수습시험 OMR 카드에 적힌 편지에 응답해 한국 방문을 결심했다고 지난주 ‘코난쇼’에서 밝힌 바 있다.

오브라이언이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 현장에는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열렬히 환영했다.

그는 16일 MBC TV 드라마 ‘한번 더 해피엔딩’의 카메오 촬영, 18일 가수 박진영과 공동 작업 등을 한 뒤 19일 출국할 예정이다.

‘코난쇼’ 한국 특집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 추모 현장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오브라이언보다 먼저 입국한 제작진은 전날 트위터수(아이디 @Earshot_Audio)를 통해 세월호 희생자 사진이 담긴 ‘기억의 문’ 촬영 모습과 함께 “세월호 사고에서 희생된 어린 학생들을 추모하는 공간에서 잠깐 머물렀다”라는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40 코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 뉴스투데이1~2부	00 모닝와이드1~2부
⑦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송라)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아침경제 끝내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⑨	00 신물이야!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만만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⑩	20 시사인사이드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40 위기탈출 넘버원 플러스	40 지구촌 뉴스	30 MBC 생활 뉴스 55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⑪	40 충격 실화극 싸인(재)	00 네트워킹 특사 (아름다운 총북 아름다운 사람들)(재) 55 안장 우리말(재)	00 수목드라마 (정사의 신 - 객주2015) (재)	10 좋은 아침
⑫		00 KBS 뉴스 12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①	1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 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설 특집(재) (가적의 시간 로스타임)	20 주말드라마 (명왕)(재)
②	30 직인직설	00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 (아이스레지하키)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③		55 튜튼생활제조(재)	05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열린 TV시청자세상
④	00 캐드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청년 대한민국 잘 부탁드립니다(재)	00 TV유치원 30 아육정 PD의 요리인류키친 40 동물의 세계	00 열린 TV시청자세상
⑤	30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트민(재)	00 베이비뉴스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⑦	00 밀착토크 풍문으로 들었소(재)	00 KBS 뉴스7 30 필 통	50 일일드라마 (최고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⑧	30 한번 더 해피엔딩(재)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놀이장)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가적의 시간 로스타임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⑨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⑩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 토론 '10' 55 송터	00 수목드라마 (정사의 신 객주 2015)	00 드라마 스페셜 (리멤버-아들의 전쟁)
⑪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백행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⑫	5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	50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5 나루면 행복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11:10 다큐 오늘	15:40 모피와 친구들	19:30 EBS 뉴스
05:30 건강한 아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팽팡(재)	19:50 글로벌 애빠 찾아 삼만리
05:40 다문화 사랑	(실론의 전설, 스리랑카를 가다)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0:40 다크 오늘
06:10 세계의 눈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당동댕 유치원 1~3(재)	(덕장에 전바람이 분다)
(자원의 미래-도시 광산업)	12:10 사선에서	17:30 꼬마버스 타요(재)	20:50 세계테마기행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3:00 링크, 소프트웨어 세상	17:45 로보카 폴리	(남미의 보석, 볼리비아 탐험기)
07:30 꼬마버스 타요	13:10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18:00 생방송 토티! 보니하니1	21:30 한국기행
07:45 로보카 폴리	13:40 사이틴-지구인 자격평가	18:05 출동! 슈퍼왕스	(내 고향 남쪽바다)
08:00 당동댕 유치원 1~3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8:20 생방송 토티! 보니하니2	21:50 EBS 다크 프리덤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4:00 미 앤 마이 로봇	18:25 아웅맘 귀여워	(어메이징 데이)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팽팡	14:30 코코몽 2	18:40 생방송 토티! 보니하니3	22:45 극한직업 (육 체취)
09:40 부모-고수다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8:45 스텔렌드 절대비법	23:35 장수의 비밀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마야의 모험	18:55 생방송 토티! 보니하니4	24:10 한국영화특선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9:00 플루토 비밀결사대	(광석이 동생 광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7일(음 1월 10일 己巳)	
	48년생 매우 부담스럽고 벽한 하루가 될 것이라. 60년생 측면에 따라 연쇄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72년생 애매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봐서 확실해 해줘야 한다. 84년생 구연으로 인한 염보가 깊으리라. 행운의 숫자 : 05, 21		42년생 매우 희귀하니 소중히 여겨야겠다. 54년생 대단하기는 하지만 자신과의 인연은 바랄 것이니라. 66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78년생 근사치가 될 것이니 만족할 만하다. 행운의 숫자 : 75, 29
	49년생 변화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61년생 평온한 가운데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다. 73년생 폭넓은 안목과 식견이 길장을 부르리라. 85년생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34, 44		43년생 가벼운 언행이 시비로 비화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55년생 다시 없이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67년생 팔 십은데 팔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법이니라. 79년생 간접 경험의 효과가 매우 크다. 행운의 숫자 : 30, 51
	50년생 대세에 따르지 말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62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느니라. 74년생 다 아는 길이라 하더라도 정확히 물어 보고 가자. 86년생 무의식 중에 내색하지 않을까 두렵다. 행운의 숫자 : 56, 65		44년생 사방이 온통 오리무중이니 미혹에 빠질까 두렵다. 56년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요령이 깊으하도다. 68년생 안정세를 취하면서 견고해지겠다. 80년생 평판을 의식하면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2, 40
	51년생 진행하기보다 잠시 정지해 있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63년생 편리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맞다. 75년생 절실한 것에 대한 언급이 있으리라. 87년생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계제이니라. 행운의 숫자 : 74, 16		45년생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감내해야겠다. 57년생 굳은 각오로 임한다면 반드시 흥성도 사라지리라. 69년생 몰라도 될 일을 알게 되어 걱정하리라. 81년생 원리원칙만을 고수할 일이 아니니 융통성 있는 수완이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41, 82
	40년생 아예 오르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다. 52년생 함께하는 것도 괜찮다. 64년생 불확실성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꼭 행해야겠다. 76년생 비교해 봐야 한다. 88년생 계획했던 일이 드디어 진행될 것이라. 행운의 숫자 : 09, 81		46년생 일회일비가 수시로 교차하는 국면이다. 58년생 아무리 애써더라도 충분히 의사 전달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70년생 선택 여하가 판국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82년생 테크에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83, 63
	41년생 구태연연에서 벗어나야 한다. 53년생 혀는 몸을 베는 칼이 되기도 한다. 65년생 여러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뜻밖의 해결책이 나온다. 77년생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리라. 89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생산적이라. 행운의 숫자 : 17, 01		47년생 분명히 해줘야 뒤달이 없는 법이다. 59년생 벌여 놓은 것 못지않게 끝까지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71년생 소망하는 바를 향해 매진한다면 이루어지겠다. 83년생 구체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64, 87